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부정적 심리변인의 매개효과

임현주¹⁾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면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는데 있다. 사용된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 자료이며, 연구대상은 전국의 영아 1,904명과 그의 어머니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적 기질이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부정적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감소방안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영아의 기질, 부정적 심리변인,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방식

I. 서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맺게 되는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이다(우수정·이영, 2011). 영아의 초기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허미경·이소은, 2010), 그 중 어머니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양육관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자녀 양육을 여성만의

1)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이렇듯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기 위해 희생적 성격과 따뜻함, 배려, 희생, 봉사, 상호의존, 애착 등의 도덕적 덕목을 요구하기도 했다(Cannella, 1997; 2002).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에서 양육만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관점은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여(정옥분, 2007), 어머니와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외형적 특질뿐만 아니라 기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기질은 생물학적 토대가 되는 개인차로 정의되는데(Goldsmith & Rothbart, 1996), 이러한 기질은 환경적 요인에 특정 반응을 유발하게 한다(Buss & Plomin, 1975). Buss와 Plomin(1984)은 환경이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기질의 변화는 잠시일 뿐 결국 태어날 때로 회귀한다고 하며 기질의 선천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질은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발달의 초기에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기까지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작용하게 된다(Rothbart, Derryberry, & Posner, 1994). 어머니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식을 선택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머니의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

영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리변화에 대해 살핀 연구가 있다. 영아자녀를 둔 어머니를 심층 면접하여 ‘부모로의 전환기’에 겪는 감정에 대해 알아본 Boulton(1983)은 연구대상자의 1/3만이 어머니가 된 후 만족감, 충만감 등의 긍정적 심리 상태를 보였을 뿐,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 심리와 부담감 등의 부정적 심리가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의 전환기’에 겪는 심리적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임순화·박선희,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가 겪는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겪는 변화보다는 어머니의 변화 폭이 크다(Tompson & Walker, 1989).

이렇듯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역할의 전환기에 겪는 심리상황의 변화가 밝혀졌다. 또한, 인간 발달에 있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아 기질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바,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어머니가 양육을 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영아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낸 여러 연구가 있다. Goldsmith와 Rothbart(1996)는 성격의 토대가 되는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오현숙(2006)은 영아의 기질이 긍정적이면 어머니는 만족도가 높아 자

녀를 양육함에 있어 반응적으로 대한다고 했다. 신지연(2011)은 부정적 정서성, 외향성의 자녀의 기질과 온정성과 합리적 지도 등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나타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했으며, 김은진·박성연·임희수(2009)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내면 부모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데 특히, 반응적인 양육방식을 보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혁준(2004)도 자녀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대할 때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 양육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과 부모의 반응적, 긍정적 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영아 자녀의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방식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도 있다. 기질 중 정서성과 활동성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핀 연구는 다음과 같다. Cutrona(1991)는 자녀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우울의 심리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아의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심리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을 알게 하는 연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박성연, 도현심과 정승원(1996)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높아지고 이는 곧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성을 논하였다. 또한, 신지연(2011)은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함을 밝히기도 했다.

기질 중 활동성에 대해 연구한 최승애(2006)는 자녀의 기질적 활동성이 높으면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어 스트레스 상황이 가중되고 우울의 지수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Cutrona(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활동적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지수는 낮아진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천희영과 옥경희(2010)의 국내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에서 활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는 결과가 예측된다고 하였다. 천희영과 옥경희(2010)가 영아의 기질적 활동성과 우울이 부적관계임을 밝힌 것은 영아의 높은 활동성이 어머니의 에너지 소모를 높여 스트레스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아의 활동성이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 반응을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활동적 기질을 가진 영아와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긍정적 심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미치는 연구는 현재 다수 이루어져 있다. 문경주·오경자(1995)는 어머니가 우울하면 자녀와 자신의 관계를 지각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Trapolini, McMahon과 Unger(2007)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민동옥·박혜원(2012)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내는 등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취하기 쉽다고 하였다. Civic과 Holt(2000)의 국외연구에서도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 상태일 때 자녀에 대한 인식은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상태에서는 강압적인 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 또한 부정적이 되기 싫다고 했다. Cramer(1993)는 어머니의 우울 심리는 자녀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등 자녀관계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불가피하여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과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bidin(1995)은 양육스트레스가 심하면 양육에 대한 관심도를 약화시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 양육방식을 행하기 쉽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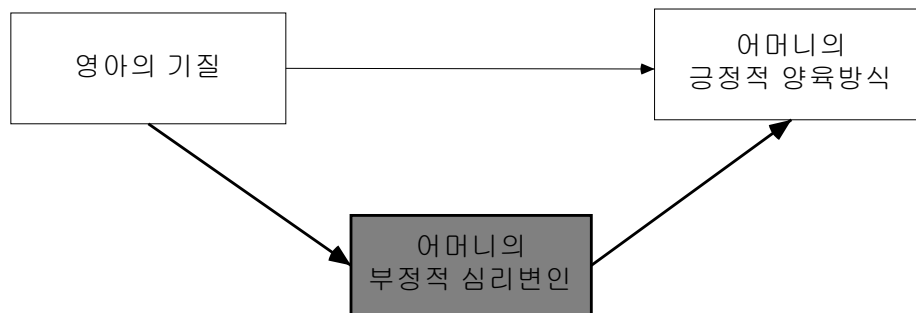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과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심리가 가지는 매개변인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아의 기질을 살필 때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을 각각 분리하여 검증함으로써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 양육방식을 함께 살피는 이러한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형성과 올바른 양육방식의 실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선정된 연구문제와 가설모델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연구문제 1.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1.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이 가지는 매개효과
[그림 1]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 매개효과 가설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2차년도(200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국가수준의 아동 패널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 태어난 만 0세아가 성장하여 만 12세까지 되는 2020년까지 10회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패널데이터는 단일 연령집단의 횡단연구와 동시에 종단연구가 가능한 자료이다. 본 2차년도(2009) 데이터는 총 1,904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상	항목	분류	n	%
자녀	성별	남	962	50.5
		녀	942	49.5
	월령	11개월~12개월	124	6.6
		13개월	447	23.5
		14개월	701	36.8
		15개월	471	24.7
		16개월~18개월	161	8.4
모	나이	25세 이하	55	2.9
		26~30세	577	30.4
		31~35세	938	49.3
		36세 이상	334	17.4
	학력	고졸 이하	579	30.4
		2년제 전문대졸	472	24.8
		4년제 대졸	747	39.2
		대학원(석사, 박사) 무응답 결측치	94 12	4.9 0.6

2. 연구도구

가.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선택한 도구는 Buss와 Plomin이 1984에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수정한 아동패널도구이다. Buss와 Plomin(1984)의 도구는 비교적 문항수가 적어 1세 영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1~9세까지 사용가능한 부모평정형 EAS, 교사평정형 EAS, 성인이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는 EAS가 개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평정형 EAS가 사용되었다. EAS 도구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성 항목과 생활에서 보여지는 행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활동성은 아동패널 연구도구에서 채택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알 수 있는 사회성 항목은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18개월 미만의 영아인 점이 고려되어 제외되었다.

정서성을 묻는 질문 내용은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잘 우는 편이다.’등의 부정적 정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활동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 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라는 낮은 활동성을 보여주는 문항과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의 높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딩의 변환이 필요한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높은 활동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평정하며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한다. 기질의 전체 문항 수는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 각각 5개씩 총 10개이다.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7$, 활동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4$ 이다.

나.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선정한 변인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이다. 우울은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 (2002)이 개발한 간편형 우울 척도(K6)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내용은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의 우울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안느낌’은 1점으로, ‘항상 느낌’은 5점으로 답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4$ 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 양육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이다.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의 Maternal Guild Scale(MGS)을 기초로 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아동패널에서 수정한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내용은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이며,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0$ 으로 매우 높아 신뢰할만하였다.

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검사도구는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과 Pecheux(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 도구(PSQ: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이다. 이 도구는 영아기 발달적 특성이 고려된 도구로 원 도구는 사회적 양육유형의 9개 문항과 가르치는 양육유형의 5개 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3개 문항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패널에서는 사회적 양육유형의 9개 문항 중 영아에게 적당치 않은 3개 문항이 제외된 후 반응성을 알아보는 3개 문항과 온정성을 알아보는 3개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반응성을 알아보는 질문 내용은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이며, 온정성을 알아보는 질문 내용은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이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방식은 온정성과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방식을 나타냄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명하였다. 양육방식의 하위변인인 온정성과 반응성의 문항수는 각각 3개씩이며 온정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4$, 반응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6$ 이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여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았다.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선형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Durbin-Watson의 d 통계치, 공차한계, VIF 수치를 살펴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만족되는지와 공선성의 문제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매개효과 분석은 회귀분석하는 방법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의 직·간접 효과를 통한 3단계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의 과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간의 영향력 검증

가. 각 변인간 상관관계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간 상관관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각 변인간 상관관계

		기질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기질	부정적 정서성	1				
	활동성	.040	1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	우울	.267(**)	-.071(**)	1		
	양육 스트레스	.292(**)	-.084(**)	.508(**)	1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213(**)	.129(**)	-.337(**)	-.480(**)	1

** $p < .01$.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활동적 기질만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정서성, 우울,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영아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R^2_{adj.})$	ΔR^2	F
어머니의 양육방식	기질(부정적 정서성)	-.173	.018	-.219	-9.846***	.045(.045)	.045	65.301***
	기질(활동성)	.117	.019	.138	6.194***	.064(.063)	.019	
	상수	2.869	.096		29.754***			

*** $p < .001$.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유의성 검증결과 F 값은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65.301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 기질의 β 값을 알아본 결과 기질(부정적 정서성), 기질(활동성)의 순서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6.4%(수정지수에 따르면 6.3%)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Durbin-Watson의 d 통계치는 1.958, 공차한계는 모두 .998, VIF 수치는 1.002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충족되었다.

다.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영아 기질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우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R^2_{adj.})$	ΔR^2	F
어머니의 우울	기질(부정적 정서성)	.304	.025	.271	12.281***	.071(.071)	.071	80.593***
	기질(활동성)	-.099	.027	-.082	-3.714***	.078(.077)	.007	
	상수	1.487	.123		12.08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기질(부정적 정서성)	.301	.022	.296	13.536***	.085(.085)	.085	99.030***
	기질(활동성)	-.106	.024	-.096	-4.397***	.094(.093)	.009	
	상수	2.329	.111		21.076***			

*** $p < .001$.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F 값은 $p < .001$ 수준에서 80.593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비율을 β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기질 중 정서성($\beta = .271$, $p < .001$), 활동성($\beta = -.082$, $p < .001$)의 순서로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beta = .296$, $p < .001$), 활동성($\beta = -.096$, $p < .001$)의 순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기질 중 정서성과 활동성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7.8%(수정지수에 따르면 7.7%)의 설명력이 지니고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9.4%(수정지수에 따르면 9.3%)였다.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Durbin-Watson의 d 통계치는 1.913, 공차한계는 .998이었다.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Durbin-Watson의 d 통계치 1.966, 공차한계는 .998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충족하였다.

라.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R^2(R^2_{adj.})$	ΔR^2	<i>F</i>
어머니의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323	.018	-.416	-17.942***	.230(.230)	.230	303.586***
	우울	-.089	.016	-.126	-5.430***	.242(.241)	.012	
	상수	4.948	.044		112.689**			

*** $p < .001$.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F 값은 $p < .001$ 수준에서 303.586으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β 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 ($\beta = -.416$, $p < .001$.) 우울($\beta = -.126$, $p < .001$.)의 순서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양육방식에 24.2%(수정지수에 따르면 24.1%)의 설명력이 지니고 있었다. Durbin-Watson의 d 통계치는 1.96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공차한계는 .742로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이 가지는 매개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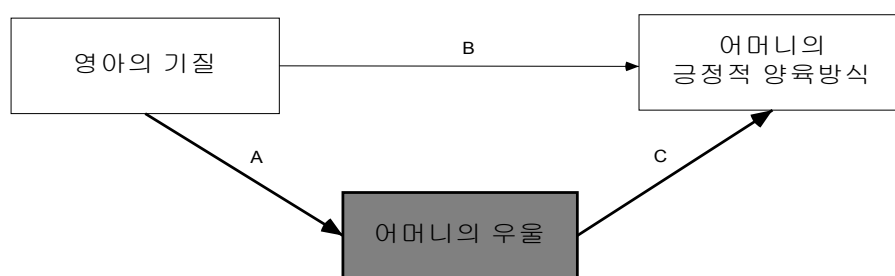
가.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

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우울이 지니는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법은 3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3단계의 검증절차가 모두 유의해야만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한다(그림 2에서의 A).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한다(그림 2에서의 B).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인이 지니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에 위계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이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며, 이 영향력이 모두 유의해야한다.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표 6에서의 3-1단계)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표 6에서의 3-2단계)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지녀야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표 6에서의 3-1단계)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표 6에서의 2단계)을 비교하여 3-1단계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의 영향력 보다 줄어들거나 사라져야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법을 대입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영아의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그림 2에서의 A),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그림 2에서의 B), 영아의 기질과 우울을 위계적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투입하였을 때(표 6에서의 3-1단계, 3-2단계),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3-1단계에서의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표 6에서의 2단계) 보다 작거나 사라져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어머니의 우울 매개효과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법을 사용하였

으며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어머니의 우울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R^2(R^2_{adj.})$	F
1단계 (A)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매개변인 → 어머니의 우울	.300	.025	.267	12.100***	.071(.071)	146.408***
2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168	.018	-.213	-9.511***	.045(.045)	90.456***
3-1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105	.018	-.132	-5.962***	.130(.129)	142.032***
3-2단계 (C)	매개변인→ 어머니의 우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212	.016	-.302	-13.596***		
1단계 (A)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매개변인 어머니의 우울	-.086	.028	-.071	-3.100***	.005(.005)	9.613***
2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110	.019	.129	5.660***	.017(.016)	32.037***
3-1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090	.018	.105	4.896***	.125(.124)	135.499***
3-2단계 (C)	매개변인→ 어머니의 우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232	.015	-.330	-15.330***		

*** $p < .001$.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eta = .267,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eta = -.213, p < .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과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우울을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각각의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eta = -.132, p < .001, \beta = -.30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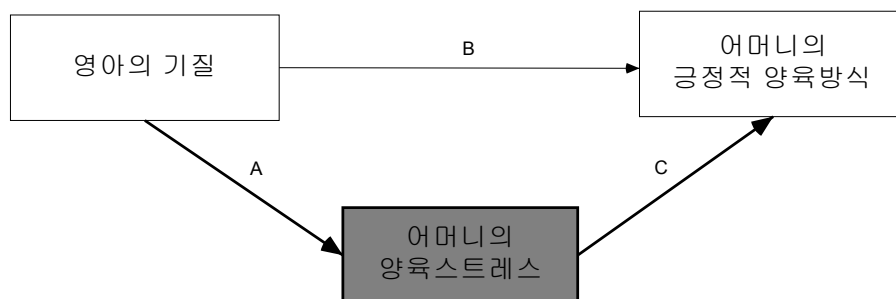
또한, 2단계에서 단독으로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B의 β 값과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을 동시에 투입한 3-1단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B'가 나타내는 β 값을 비교하였을 때 -.213에서 -.132로 감소되었다($p < .001$).

영아의 기질(활동성)도 값은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2단계에서 단독으로 영아의 기질(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B의 β 값과 영아의 기질(활동성)과 어머니의 우울을 동시에 투입한 3-1단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영아의 기질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B'가 나타내는 β 값을 비교하였을 때 .129에서 .105로 감소되었다($p < .001$). 이로써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심리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담당하는 매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으로 가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eta = .292,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eta = -.213, p < .001$). 2단계에서의 단독으로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B에서의 β 값과 3-1단계에서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B'에서의 β 값과를 비교하였을 때 -.213에서 -.080으로 감소하였다($p < .001$).

〈표 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R^2(R^2_{adj.})$	F
1단계 (A)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매개변인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297	.022	.292	13.305***	.085(.085)	177.017***
2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168	.018	-.213	-9.511***	.045(.045)	90.456***
3-1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063	.017	-.080	-3.809**	.236(.235)	293.856***
3-2단계 (C)	매개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354	.016	-.457	-21.788***		
1단계 (A)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매개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093	.025	-.084	-3.681***	.007(.007)	13.551***
2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110	.019	.129	5.660***	.017(.016)	32.037***
3-1단계 (B')	독립변인→ 영아의 활동성 → 종속변인 어머니의 양육방식	.076	.017	.089	4.428***	.238(.237)	297.170***
3-2단계 (C)	매개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종속변인 → 어머니의 양육방식	-.367	.016	-.472	-23.516***		

*** $p < .001$.

영아의 기질(활동성)도 값은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2단계에서 단독으로 영아의 기질(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B의 β 값과 영아의 기질(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한 3-1단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영아의 기질(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B'가 나타내는 β 값을 비교하였을 때 .129에서 .089로 감소되었다($p < .001$). 이로써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이 긍정적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아의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덜하고 활동적일 경우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반응적이며 온정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거나 보채는 등의 부정적 정서가 덜할수록 자녀를 대할 때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지니는 온정적 양육을 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영아의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여 울거나 화를 잘 낸다면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온정적 양육방식을 취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정서성이 덜하고 적극적인 기질의 자녀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Sanson, Hemphill과 Smart(2004)의 연구를 본 연구결과는 지지하였다. 즉, 본 연구와 신지연(2011)과 김은진·박성연·임희수(2009)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영아의 기질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방식의 부적 인과관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는 등의 활동적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어머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활동성의 기질과 긍정적 양육방식 간에 나타나는 정적 인과관계도 검증되었다.

둘째,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우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영아가 부정적 정서성이 덜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놀이를 좋아하는 활동적 특질을 지니면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영아의 기질을 연구한 신지연(2011)과 이현정(1996)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 정서성을 지닌 유아로 인해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더 지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동옥과 박혜원(2012),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자녀의 기질 중 자주 울고 보채는 등의 부정적 정서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녀의 기질에서 활동성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우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덜하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심리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의 기질 중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정서성이었다. 즉, 영아의 기질 중에서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지영, 이지현, 성원영(2011)와는 어머니의 우울의 심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울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우울지수가 높아짐으로 인해 양육방식에 있어서 온정적이며 반응적인 태도는 감소되고 있었다. 우울의 심리는 양육의 과정 이전 출산 전·후에도 존재한다. 출산 전·후에 느끼는 우울의 심리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된다(권정혜, 1997). 그러나 출산 전·후의 우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거기에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의 심리가 누가된다.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우울지수가 높으면 자녀의 요구에 응하는 반응도가 낮아지며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문경주·오경자(1995)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양육은 비일관적이기 쉬워 양육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힌 Johnson, Cohen, Kasen과 Brook(2006)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Field, Healy, Goldstein과 Gurtherts(1990)는 우울이 심하여 우울증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와 거리를 두게 되어 부정적 상호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렇듯 우울의 심리는 어머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관계하게 되므로 우울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부정적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장희정(2005)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강압적이거나 거부적이기 쉽다고 했다. 안지영(2001)도 양육스트레스는 스스로 느끼는 안정적 심리와 관계있어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Abidin(1995)도 양육스트레스가 비록 매우 낮은 수준이라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주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와 Nazir(2002)는 영아 자녀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자녀양육을 행하기 어렵다고 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불안한 정서적 기질의 자녀를 양육하면 어머니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우울해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는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양육하게 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Dumas와 LaFreniere(1993)의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심리변인에 영향을 주며, 부정적 심리변인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변인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알아내어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감소 방안의 필요성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유아를 대상으로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매개변인 작용에 대해 살폈는데 전국의 일반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살펴본다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해당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Goldsmith와 Rothbart(1996)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나미순(2006)은 어머니의 양육이 애정적이고 온정적이면 자녀는 리더십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위의 연구를 통해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 자녀의 발달간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여겨 이를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발달의 저해요인(이정희, 2000)으로 나타난 바,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양육과 자녀의 발달을 위한 실제적 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정혜 (1997). 심리학적 요인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6(2), 55-66.
- 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은진·박성연·임희수 (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2.
- 김지영, 이지현, 성원영, 명성민, 강형원, 김지훤(2011). 유아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의 차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2(3), 43-53.
- 나미순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쉽 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오경자 (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동욱, 박혜원(2012). 영아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어머니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대한가정학회, 50(3), 51-58.
- 박성연·유명희 (1992).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배병렬 (2011). Amos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어람.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5(2), 291-312.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영희·김연화·한세영 (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1-14.
- 오현숙 (2006).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11-226.
- 우수정·이 영 (2011). 부모의 배우자 애착, 배우자 보살핌 행동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부모 표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5), 29-47.

- 육아정책연구소 (2011).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
- 이정희 (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순화·박선희 (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장희정 (2005).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의 양육효능감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7). 전 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천희영·옥경희(2010).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변인 분석: 어머니의 부모됨 및 양육관련 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제 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59-82.
- 최승애 (2006).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경·이소은 (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_____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_____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oulton, M. (1983). *On being a mother: A study of woman with pre-school childre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uss, K. A.,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_____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nnella, S. G. (2002).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유혜령 옮김). (pp. 209).

서울: 창지사. (원본발간일 1997년).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ivic, D., & Holt, V. I. (2000). Maternal depression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normal birth weight sample. *Mental and Child Health Journal*, 4, 215-221.
-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 283-297.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trona, C. E. (1991). Nonpsychotic postpartum dep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487-503.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r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 Psychology*, 26, 7-14.
- Goldsmith, H. H., & Rothbart, M. K. (1996). The laboratory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Prelocomotor version, V. 3.00. Unpublished manuscript.
- Johnson, J. C., Cohen, P., Kasen, S., & Brook, J. S. (2006). Maternal psychiatric disorders, parenting, and maternal behavior in home during the child rearing year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5(1), 97-114.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nn, M. B.,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a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Rothbart, M. K., Derryberry, D., & Posner, M. I. (1994).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emperament.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

- (pp. 83-1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Tompson, L., & Walker, A. J. (1989). Gender in familism: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845-871.
- Trapolini, T., McMahon, C. A., Unger, J. A. (2007).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adjustment on young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6), 794-803.

·논문접수 3월 25일 / 수정본 접수 6월 9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교신저자: 임현주,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이메일 misungkid@hanmail.net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Style

HyunJu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style, with a focus on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negative psychological variable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Using data from the 2n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the study examined temperaments of 1,904 infants who were born in 2008 and parenting style of their mothers.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fant temperament effected mothers' negative psychological state a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style. Also, mothers' negative psychological variables had effects 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style. Second,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on mothers' positive parenting style were mediated by mothers' negative psychological variables.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mothers to reduce their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Key words: infant temperament, negative psychological variables, maternal depression, parenting stress, positive parenting style